가상공간서 '나만의 가전' 만들고 '집들이'까지

삼성 '로블록스' 신규 서비스 선봬
게임하듯 가전 꾸미고 업그레이드
LG, 오늘의집에서 제품 체험 제공
VR 통해 생생한 오브제컬렉션 경험

삼성전자가 로블록스에 선보인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왼쪽 사진), 오늘의집에서 LG전자 오브제컬렉션을 VR로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관.
사진제공 | 삼성전자·LG전자

가전 업계가 온라인을 통한 체험 마케팅에 힘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메타버스'와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해 생활가전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꾸렸다.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한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이다.

●삼성 '로블록스'에 타이쿤 선봬

삼성전자는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이라는 가상공간을 선보였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타이쿤) 형식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우주에서 외계인 캐릭터와 삼성전자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아이템으로 즐길 수 있다. Z세대 등 젊은 고객들이 삼성전자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은 외계인들이 신제품을 연구하는 삼성 우주 연구소를 배경으로 하며 ▲자원을 얻는 '마이닝 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 ▲제품을 제조하는 '랩'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자원을 발굴해 스마트폰부터 각종 가전까지 삼성전자 제품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갤럭시Z플립'이 가방이나 스쿠터로, '제트봇' 청소기가 하늘을 나는 호버보드로, 라이프스타일 TV '더세로'가 1인용 헬리콥터로 이용되는 등 실제 제품이 아이템으로 등장해 재미를 준다. 20여 종의 삼성전자 제품으로 구성된 아이템은 성취 등급 등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며, 각 시리즈의 최신 제품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은 한국어·영어·중국어·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지원하며, 게임 외에도 댄스 파티 등 참가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진수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 부사장은 "미래 고객을 위해 흥미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또 다른 인기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한 제품 체험 경험도 확대해왔다. 1월 선보인 나만의 집 꾸미기 서비스 '마이 하우스'를 시작으로, 2월에는 포터블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더 프리스타일 월드맵'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LG 오브제컬렉션 VR로 경험

LG전자는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에서 공간 인테리어 가전 '오브제컬렉션'을 경험할 수 있는 VR 브랜드관을 열었다. 오브제컬렉션 제품으로 완성한 인테리어를 '오브제컬렉터즈 아파트'라는 콘셉트의 VR 랜선집들이로 구현했다.

이용자는 롱보드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신혼부부, 푸드스타일리스트 40대 부부 등 인플루언서 2팀이 실제 거주하는 집을 360도 상하좌우로 둘러보며 오브제컬렉션 제품을 체험하게 된다. LG전자는 앞으로 1인 가구, 4인 가족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인테리어와 오브제컬렉션 제품을 경험하도록 콘텐츠를 추가할 예정이다.

LG전자는 VR로 체험한 제품 정보를 검색하고 구입까지 가능한 '내 손안의 디지털 팝업 스토어'도 구현했다. 냉장고, 오븐, 틔운 등 제품 도어를 열었을 때 차지하는 공간, 제품별 색상, 구입 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G전자는 올해 초 열린 가전 전시회 CES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재미있게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체험공간을 꾸몄다. 제페토와 로블록스, 모여봐요 동물의 숲 등에서 주요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LG AI 아티스트 '틸다', 세계 3대 광고제서 금·은 수상

뉴욕 페스티벌 '더 퓨처 나우' 부문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중들과 교감"

LG의 인공지능(AI) 아티스트 '틸다'가 15일(현지시간) '2022 뉴욕 페스티벌'에서 '더 퓨처 나우' 부문 금상과 은상을 동시 수상했다. 뉴욕 페스티벌은 칸 라이언즈, 클리오 어워즈와 함께 세계 3대 광고제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세계 60여 개국에서 출품한 작품들이 경쟁을 펼쳤다. 뉴욕 페스티벌은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기존엔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중들과 교감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더 퓨처 나우 부문을 신설했다.

금상 수상작인 '기후 변화에 맞서는 최초의 AI 틸다'는 2월 뉴욕 패션 위크에서 틸다와 박윤희 디자이너가 협업해 선보인 '그리디어스 바이 틸다-금성에 핀 꽃' 컬렉션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캠페인이다. AI 아티스트의 작품이 수상한 첫 사례로,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를 AI 아티스트와 패션 디자이너의 협업이라는 새 방식으로 풀어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의 AI 휴먼 틸다는 인간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전문가 AI'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다. LG의 초거대 멀티모달 AI '엑사원'의 두뇌를 탑재해 스스로 학습하고 사고·판단하며 언어의 맥락까지 이해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하는 능력을 갖췄다. 뉴욕 패션 위크에서 선보인 컬렉션을 구성하는 200여 개의 의상은 틸다가 '금성에 핀 꽃'이라는 주제로 창작한 3000장이 넘는 이미지와 패턴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은상 수상작인 '데이터를 통해 성장하는 AI 휴먼 틸다의 정체성'은 틸다가 데이터를 학습하며, 성격과 가치관을 만드는 성장 과정을 담은 책자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이번 뉴욕 페스티벌 수상으로 LG의 초거대 멀티모달 AI 엑사원의 기술력과 창의성, AI 휴먼과 인간의 협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LG AI 기술을 더욱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뉴욕 패션 위크 런웨이에서 박윤희 디자이너와 함께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AI 아티스트 틸다(오른쪽).
사진제공 | LG그룹

김명근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18일 (월) 음력: 6월 20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청색 길방:동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길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바라지 말라.	무슨 일에 있어서나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면서 번다.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견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오늘은 원숭이 날이다. 토끼는 원숭이날을 만나면 도전적이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운을 갖게 된다. 신중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조급히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시든 화초가 비를 만나는 격이다.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서두르지 말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흰색 길방: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 의외의 횡재수가 있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오늘은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대체로 좋은 위치에 있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수 가 많다. 따라서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자제하라.	민둥산에 심어진 묘목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온 산을 초록으로 덮는 것처럼 점진적 발전을 할 때이다.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다. 급격한 성장은 바랄 수 없으나 착실하게 순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실속은 있는 날이다.	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나쁜 의미로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잘 풀리지 않으며 교재비를 많이 쓰게 된다. 머리를 쓰라.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아가면 상대가 주춤하고 멈춘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KT-기업은행 'AI보이스뱅킹' 서비스 상용화

KT는 IBK기업은행과 인공지능(AI) 음성인식 플랫폼 '기가지니인사이드'에 기반을 둔 'AI보이스뱅킹' 서비스(사진)를 공동 개발해 상용화했다. IBK기업은행은 AI 보이스뱅킹을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인 '아이원뱅크'에 적용해 업데이트 했다. AI보이스뱅킹 관련 기능은 간편송금과 메뉴찾기, 일상대화 3가지다. 간편송금은 별칭으로 등록된 계좌에 빠르고 편리하게 돈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다. 메뉴찾기는 금융 서비스 관련 메뉴를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찾아주는 기능이다. 일상대화를 통해서는 뉴스 브리핑이나 날씨 정보를 음성으로 호출해 확인할 수 있다. KT는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해 AI 기술을 토대로 한 금융 DX(디지털전환)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일클럽' 국가서비스대상 3년 연속 대상

지마켓은 G마켓과 옥션의 멤버십 서비스 '스마일클럽'이 '2022 국가서비스대상' 쇼핑 멤버십 부문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고객만족, 서비스가치 등 항목을 정량화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은 기업 및 서비스 분야에 수여하는 상이다. 스마일클럽은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실질적 혜택을 지속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신세계그룹 편입 후 SSG닷컴과 연계한 통합멤버십을 출범하며 한 단계 진화한 멤버십 서비스로 재탄생한 점도 반영됐다. 이정엽 지마켓 마케팅본부장은 "G마켓, 옥션과 SSG닷컴을 중심으로 구축된 통합멤버십을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쇼핑에 특화된 멤버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쿠팡 "토트넘 내한 경기 300만명 시청"

쿠팡은 토트넘 내한 경기를 쿠팡플레이로 와우 멤버 300만 명 지켜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경기는 쿠팡 와우 회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쿠팡플레이를 통해서만 중계됐다. 13일 토트넘이 팀 K리그와 승부를 펼친 1차전의 경우, 약 184만 명의 UV(유니크 뷰어, 중복 없이 1회 이상 경기를 재생한 고객)를 기록했다. 토트넘과 세비야 FC가 유럽 축구를 선보인 16일 2차전 중계는 110만 명의 UV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경기는 쿠팡 와우 멤버십 가입 회원들에게만 티켓을 판매해 직관 기회를 제공했다. 1차전이 치러진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6만4100명의 관중들이 모였고, 2차전 장소였던 수원월드컵경기장에는 4만3998명이 관중석을 가득 메웠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18일(월)

서울	인천	춘천
60/60	20/60	30/70
23 / 31	23 / 30	21 / 31
강릉	**대전**	**전주**
20/70	60/60	70/90
23 / 30	23 / 29	23 / 29
광주	**대구**	**부산**
80/80	60/90	90/90
24 / 29	24 / 28	24 / 27
창원	**제주**	지역 / 강수 확률 (오전/오후)
90/90	60/60	날씨 / 최저 최고기온℃
23 / 27	27 / 32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68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